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2월 27일(주일) 제1080호

2016년 온누리교회 표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송구영신 및 신년예배를 각 캠퍼스별로 드린다. 송구영신예배(12월 31일)는 서빙고 오후 7시, 9시, 11시, 양재, 부천, 수원, 인천 오후 9시, 11시, 대전,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후 11시에 드린다. 신년예배(1월 1일)는 서빙고, 양재 오전 9시, 11시, 부천, 수원 오전 9시, 대전 오전 11시에 드린다. 나머지 캠퍼스는 신년예배가 없다.

2015년 온누리교회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를 표어로 내걸고 힘차게 달려왔다.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다. 송구영신40일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3월 고난주간 심야예배 '내뿜의 십자가', CGNTV 개국 10주년, 4월 러브소나타 교토, 5월 네팔 지진피해 현장 긴급구호팀 급파, 부모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6월 예배·선교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 '하나님의 소원', 건강한 교회 세미나, 7월과 8월 여름 아웃리치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8월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9월 회복축제 'The 기쁨', 10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11월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2월 장로장립예배, 40~50대 남편들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비긴어게인' 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쉬 없이 달려왔다. 지금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이다. 내년 1월 23일까지 이어진다.

2016년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표어로 내걸고 더 열심히 낮아지고, 섬기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한해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캠퍼스	시 간
서빙고	오후 7시 / 오후 9시 / 오후 11시
양재	오후 9시 / 오후 11시
부천	오후 9시 / 오후 11시
수원	오후 9시 / 오후 11시
대전	오후 11시
남양주	오후 11시
인천	오후 9시 / 오후 11시
평택	오후 11시
강동	오후 11시
양지	오후 11시

1월 1일 신년예배

캠퍼스	시 간
서빙고	오전 9시 / 오전 11시
양재	오전 9시 / 오전 11시
부천	오전 9시
수원	오전 9시
대전	오전 11시
남양주	예배 없음
인천	예배 없음
평택	예배 없음
강동	예배 없음
양지	예배 없음

2016 선교헌금 작성

1월 3일, 10일 ... 중보기도 및 재능기부도

2016년 1월 3일과 10일 선교헌금 작성 행사를 실시한다.

선교헌금 작성행사에는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다. 중보기도 및 재능기부도 후원 가능하다. 자동이체(CMS) 방식은 1월 3일과 10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 신청서에 신규 후원인지 후원 연장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속캠퍼스, 성명, 핸드폰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 생년월일도 기입해야 한다. 작성금액은 금액란에 표시하면 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현금 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고, 작성금액란에 표시해야 한다. 또 선교헌금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문의: 02-3215-3616 <관련기사 7면> / 김현준 기자



대학청년부 사회선교사역에 참가한 한 자매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도심 속에서 새벽기도를 섬기는 청년들

갈렙공동체 도곡 홀리스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이다. 한겨울 추위도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청년들은 홀리스타(Holy Star) 새벽기도회를 통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다.

오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주인공은 도곡교육관에서 새벽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다. 그들은 1년 내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열리는 새벽기도회를 섬기고 있다. 도곡 홀리스타를 섬기기 위해 가깝게는 도곡동, 멀게는 경기도 수원에서부터 달려오는 열혈 청년들이다. 졸음과 피곤을 물리치고 매일 새벽을 기도로 깨우고 있는 그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마르지 않는 힘 '새벽기도'

한희선 자매는 미국에서 귀국하고 다닐 교회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성경책을 든 청년들이 도곡교육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

“십자가가 없어서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몰



도곡 홀리스타 새벽기도를 섬기는 갈렙공동체 청년들.

랐어요. 새벽에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갈렙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 적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순장이 새벽기도회를 섬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때가 2013년이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것이 일주일에 두 번이 되고, 지금은 매일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

었어요. 사실 왜 나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섬기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새벽기도가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그녀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새벽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영혼들을 찾는 곳이에요.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장이지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

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강신희 자매도 새벽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비웃었다. 그 새벽에, 그것도 커피숍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그렇게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매일같이 새벽기도회 나오면서 스태프들과 친해지고, 저도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어요. 새벽기도회는 제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민영 자매는 수원이 집이다. 매일 새벽 수원에서 도곡교육관까지 와서 섬기고 있다. 그녀는 갈렙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회에 처음 나왔다.

“저에게 새벽기도는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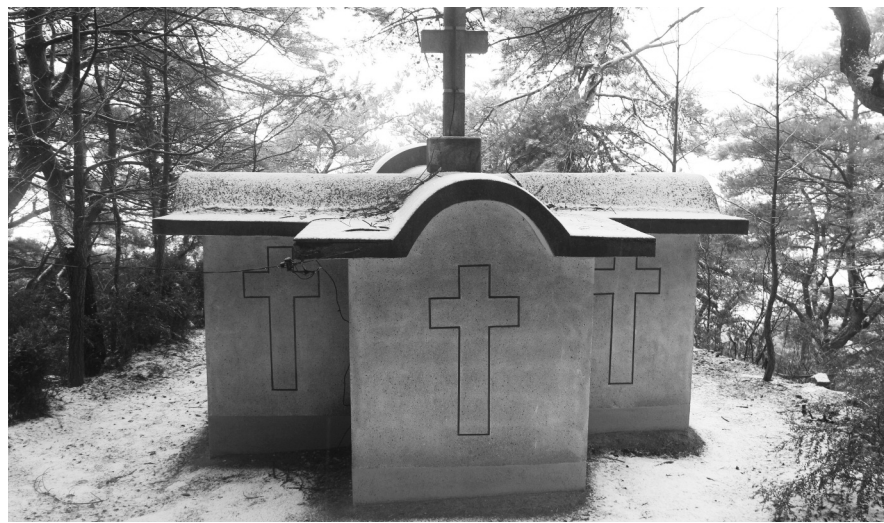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 선배들을 찾아서 2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가나안농군학교는 김용기 장로가 1962년 설립한 사회교육기관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정신 함양, 농촌지도자 육성을 담당했다. ‘봉안이상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제2가나안농군학교’로까지 발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가나안농군학교를 찾았다. 그곳에서 김용기 장로의 발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김용기 장로가 매일 기도한 구국 기도실.

김용기 장로는 1909년 9월 5일 경기도 양주군 봉안에서 출생했다. 엄격한 유교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김춘교)가 이웃 마을에서 족북음을 통해 건네받은 성경구절(요 3:16절)에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

김용기 장로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신앙이었다. 그 신앙이 뿌리내리고 자라서 그가 개척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1차 봉안이상촌, 제2차 삼각산농장, 제3

차 에덴향, 제4차 황산 가나안농장, 제5차 신림 제2가나안농군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김용기 장로의 아버지는 “꼭 농사꾼이 되라.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는 산업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문명이 발전하려면 농산물을 증산하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쳤다. 김용기 장로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농사꾼의 길로 들어섰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가나안농군학교에 가

면 당시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흔적들이 가득하다. 김용기 장로가 버려진 산소통으로 만든 ‘개척의 종’도 볼 수 있다. 김용기 장로는 매일 아침마다 육체의 잠, 사상의 잠, 영혼의 잠에서 깨자는 의미로 개척의 종을 쳤다.

김용기 장로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1975년 3월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두 번, 네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그가 매

일 올라 기도했다던 구국기도실에도 가보았다. 가파른 산 길을 따라 오르니 흰색 벽의 구국기도실이 보였다. 쪽방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김용기 장로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구국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조국이며 안심하라, 온 겨레여 안심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김용기 장로는 농사지는 지 2년 만에 동네에서 제일가는 농사꾼이 됐다.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상촌(理想村)을 꿈꿨다. 이상촌은 에덴동산을 재현한 마을이었다. 그렇게 서서히 가나안농군학교의 옛 이름 봉안이상촌이 건설되어 갔다. 의식주 개선, 영농기술 개발과 보급, 생필품 공동 구입, 길흉사 때 상부상조, 청소년 교육과 문맹 퇴치에도 힘썼다. 또한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마을운동의 뿌리가 됐다.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들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전해나갔다.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는 농촌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70만명 가량의 학생들이 가나안농군학교를 수료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에도 7개 분교가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제2가나안 농군학교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5
문의: 033-762-5090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미가서 5:1~4

“버림받은, 슬픔 가득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해야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법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유대지역을 더 이상 자치국으로 두지 않고 직할로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도록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만약 로마법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거나 강력하지 않았더라면 만삭된 여인까지 여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요셉의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법적 재산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이 원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그 안에는 재산을 사고팔 수 있지만 50년이 되면 원소유자로 돌아옵니다. 인구조사는 원래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야만 인구조사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자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야심과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했지만 그 너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오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와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특별한 징조를 볼 수 있게 하셨고, 들판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신 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왜 베들레헴인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 떡입니다. 빵집 혹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에는 항상 ‘에브라다’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는 빵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취볼 때 베들레헴은 그 이름부터가 예언된 지역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분이 떡집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생명의 빵이신 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빵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명칭조차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베들레헴이 작고 지저분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2절).

여기서 “네가 비록 아주 작지만”이라는 문장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근거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성읍들이 40여 개 나옵니다. 거의 모든 성읍들이 망라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지도에도 나올 필요가 없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도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성읍들을 열거하는 목록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빠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시해도 좋은 마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위성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재물이 드러지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곳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뉘새 나고 지저분한 동물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키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뉘새 나고

지저분한 동물들을 사육하는 성읍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동물들의 좋지 않은 냄새가 가득한 그 작은 마을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헤브론이나 나사렛이 신흥 도시였습니다.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산다고 하면 명함 내밀기도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장소로 베들레헴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작고, 지저분한 동네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 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목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관주인으로 하여금 그분이 나의 여관을 선택하셨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목수로 하여금 이 침대 만드는 기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우리 마을의 위대함 때문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자랑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작고, 지저분한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소외받았던 베들레헴이 메시아가 출생한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소외 받는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슬픔의 성읍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출생 장소로 베들레헴을 선택하

신 두 번째 이유는 ‘슬픔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뱀엘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그곳에 묻힙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당시 지도자들에게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두 살 아래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아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성읍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기가 학살당할 때 통곡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작고 지저분한 성읍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유아들이 대학살 당하는 슬픔의 성읍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마 2:16-18).

메시아의 출생으로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야 할까요. 베들레헴처럼 지금이 시대에도 슬픔이 가득한 곳이 많습니다. 학살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IS라는 엄청난 악의 집단에 의해 살해되는 수많은 사람들, 무참하게 처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도 베들레헴과 같은 곳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의 성읍으로 오셨습니다. 슬픔 당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시려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슬픔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선물하려고 오셨습니다.

〈13면에 계속〉

온 누리에 기쁨과 축복을 ...

온누리교회가 보낸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낮은 곳에서 만나는 성탄이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다운 행보였다. 장로합창단은 강남역 길거리에서 찬양을 했고, 여호수아공동체와 성인공동체가 힘을 합쳐 '남대문 5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행사'를 개최했다. 강동 온누리교회 전도팀은 노방전도를 했다. 양재 온누리교회 목사들은 교회직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고,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영어예배는 요양센터를 찾아가 어르신들을 섬겼다.

/ 정현주,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기자



장로합창단 강남역 길거리 찬양.



남대문 5가 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



강동 온누리교회의 노방전도.

장로합창단 '강남역 길거리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난 19일 여기는 강남역. 산타 모자를 쓰고, 빨간 머플러를 두른 장로합창단이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고 있다. 주말 저녁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캐럴에 귀 기울였다. 하루 유동인구가 3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강남역에서 예수탄생 소식을 알리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광경이 장관이다.

이날 장로합창단이 선보인 공연의 이름은 ‘메리 크리스마스 강남(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이다. 압구정아피아(APIA)가 주최하고, 강남구와 코엑스몰이 후원하는 거리공연이다. 여러 아티스트들이 19일부터 24일까지 강남역 일대, 압구정 로데오거리, 가로수길, 코엑스에서 공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관악 합주팀 ‘푸른초장브라스밴드’, 어린이 합창단 ‘코리아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블랙가스펠팀 ‘헤리티지매스콰이어’, 천재 기타리스트 ‘김하진’, 보컬밴드 ‘어글리 프렌즈’, 여대생 미니밴드 ‘옆집토끼’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공연했다. 온누리교회 장로합창단도 아티스트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갈렙공동체 차유미 자매의 도움으로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매년 길거리 축제를 준비하는 차유미 자매가 강남구청과 협의해 장로합창단을 초청한 것이다.

이날 장로합창단은 강남역 롯데시네마 앞에서 공연을 했다.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귀에 익숙한 캐럴과 찬송가를 선곡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부른다♪”

특히 장로합창단 멤버 장광 장로(성우, 배우)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은 장광 장로를 보고 “TV에 나온 사람”이라고 외치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달려들었다.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릴 수 있었다.

장로합창단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다른 공연팀을 응원했다. 누구보다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지나치던 사람들도 장로합창단의 환호성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역시 온누리교회 장로들은 달라도 뵈가 달랐다.

장로합창단의 공연을 보던 한 외국인은 “So special, so happy holiday”라며 감탄했고, 한 시민은 “장로들이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장로합창단 하성기 장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했고, 박찬빈 장로는 “내 평생 오늘처럼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감격했다.

남대문 5가 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은 남대문 5가 쪽 방촌 주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구주 탄생을 축하했다.

지난 25일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남대문

경찰서 3층 강당에서 ‘남대문 5가 마을 크리스마스 블레싱’ 행사가 열렸다. 남대문 5가는 쪽방촌이 밀집된 곳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가 2011년부터 섬기고 있는 지역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도 참석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주민들을 격려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주민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화창이 떠나가라 외치며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호수아공동체뿐만 아니라 성인공동체도 두 팔 걷어 부치고 섬겼다. 온누리햇불남성합창단, CMN챔버팀, 양재 권사회 오카리나팀, 서초B공동체 남오순, 강남A공동체 햇살9순, 브릿지33+공동체, 양재 금홍사역팀이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남대문 5가 주민 김홍기씨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저는 2011년 ‘버거스씨병’에 걸려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두 다리와 함께 내 미래와 희망도 절단되었습니다. 그 뒤로 내 영혼과 몸을 술에 맡기고 살았습니다. 이웃과 다투고, 집에 불을 질러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다시 동네로 돌아오니 방을 주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터전은 바뀌었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방세를 내고 나면 주머니에 동전만 남았습니다. 외상으로 술을 먹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제 인생이 하루살이 같았습니다. 가족들과 단절되

고,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는 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대문 마을 예배 권사님과 청년들이 교회에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니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방을 청소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이제 술을 끊기로 다짐하고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대문 마을 예배는 밖에서 드립니다. 다리가 없는 나는 두 팔로 기어 공원 계단을 올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들과 청년들과 대화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민들레 예술문학상에 참가해 입상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임대주택과 상금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강동, 크리스마스이브 노방전도

강동 온누리교회 전도팀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전도축제를 열었다. 천호동 나비쇼핑몰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탄생 소식을 알렸다.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이날 강동 온누리교회 전도팀은 시민들에게 전도지와 수면양말을

“Merry Christmas”

길거리 찬양, 노방전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초청.



양재 직원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영어예배, 요양센터에서 어르신과 함께.

선물했다.

유독 눈에 띄는 성도가 있었다. 이영희 성도다. 그녀의 전도실력이 탁월했다. 그녀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는 전도폭발훈련을 7년 동안이나 섬긴 전도 베테랑이다. 그녀가 최근 3년 동안 1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2백명 정도가 예수를 만났다.

강동 은누리교회 대학부 강수정 자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녀는 “혼자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아서 노방전도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수정 자매가 소속된 대학부 청년들은 이날 전도축제를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함께 기도하고, 선물을 포장했다.

최원준 목사(강동 은누리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친숙하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전도축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도축제에서 만난 한 청년은 “이력서 100통을 썼는데 단 한곳에서도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해 낙심해 있었는데 이날 전도축제 메시지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 최원준 목사가 ‘인생의 초고성능 지우개’를 주제로 설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2천년 동안 사람이 발명한 물건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지우개입니다. 2015년 한 해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아픔과 슬픔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양재, 교회직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지난 22일 양재 은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양재 은누리교회 목사들이 교회직원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한 것. 테이블마다 깨끗한 식탁보가 깔렸고, 그 위에 꽃과 촛불을 올려 한껏 멋을 냈다.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양증맞게 나비넥타이를 매고 빨간 앞치마도 둘렀다.

드디어 파티 주인공들이 도착했다. 목사들이 분주하게 식사를 나르고, 커피와 음료를 대접했다.

이상준 목사(양재 은누리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회직원들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직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재 은누리교회 목사들은 이날 파티를 위해 사비를 털어 도시락을 준비했고, 애장품도 내놓았다.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자필 카드도 썼다. 뿐만 아니라 테이블 세팅부터 안내, 서빙, 뒷정리까지 모두 책임졌다. 그 덕분에 교회직원들이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된 한 직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면서 “먼저 낮아지고, 술선수범해서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었

다”고 말했다.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위한 성탄축하예배

남양주 은누리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로 초대했다. 그들을 위해 인도식 볶음밥과 국악공연, 주영광찬양사역팀의 칸타타가 준비됐다. 인도어로 번역된 찬양도 함께 불렀다.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이였다.

이날 예배를 유독 열심히 섬기는 형제가 있었다. 그는 8년 전 인도에서 온 해리 형제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다. 그가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 때문에 많이 지쳐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도와줄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찾고 찾다 임현태 장로를 찾아갔다.

“장로님,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요.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임현태 장로가 해리 형제의 수호천사가 돼 주었다. 그의 친구를 찾아가 해리 형제의 진심을 전해줬다. 그 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해리 형제는 그 일을 계기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양주 은누리교회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남양주 은누리교회도 해리 형제와 가족처럼 지냈다. 힌두교인 아내를 전도하고 싶어 하는 해리 형제를 돕기도 했다. 최근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가 해리

형제의 집을 찾아가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선교사는 남양주 은누리교회에서 해리 형제와 막역하게 지낸 사이다. 그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받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해리 형제의 집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 아웃리치를 해리 형제의 고향으로 다녀왔다.

영어예배, 어르신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영어예배는 은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았다.

루돌프 머리띠와 산타복장을 한 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한 손에 선물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악보집을 들고 있었다. 한국에 유학 온 청년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 4명도 동참했다. 어르신들과 뜻 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봉사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봉사자들의 극진한 섬김과 신나는 공연을 본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영어예배 박수현 자매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조남수 형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르완다에서 온 르노세 형제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했고, 케냐에서 온 시비트 형제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아 행복하다”고 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부 127쌍 참석, 36명 결신 66명 긍정적 반응



40대 50대 남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

지난 21일 여기는 서빙고 본당. 40~50대 남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이 한창이다.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신서를 작성하자 눈물 흘리는 아내, 남편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아내, 집회 중에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이 보였다.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 받기 바라는 아내들의 절실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날 전도집회에는 부부 127쌍이 참석했다. 남편 36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66명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이곳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수없이 부르짖는 아내들의 기도가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현장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이수공동체 전영숙 성도(이수공동체)는 아들과 함께 남편에게 영상편지를 보냈다. 전영숙 성도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왔다. 그녀의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와 사이가 멀어졌다. 그렇게 30여 년이 흘렀다.

그녀는 교회에서 40~50대 남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슴이 뛰었다.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녀는 교회에서 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떠올랐다. 말도 꺼내지 못하고 넘기기 일쑤였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남편을 교회에 반드시 초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전도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선뜻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도집회 3일 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도집회 당일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교회에 가기가 영 불편하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공동체 지체들과 전도팀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남편이 전도집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전영숙 성도 부부는

그렇게 극적으로 맞춤전도집회 ‘비긴어게인’에 오게 됐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일까. 영상에 나오는 아내의 “사랑해요”, 아들의 “감사해요”라는 말에 전영숙 성도의 남편은 눈물을 왈칵 쏟았다.

여의도공동체 배문주 성도의 남편은 모태신앙인이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남편은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교회에서 40~50대 남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남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집회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남편을 전도집회에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용기를 내서 맞춤전도집회 참가신청을 했다.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전도매뉴얼을 따라 기도했다. 그런데도 남편이 참석할 가능성은 10%정도라고 생각했다. 전도집회 며칠전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전도집회에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남편은 “가주기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막상 교회에 도착하니가 남편이 어색하고 민망해했다. 그 와중에 스크린에서 아내가 보낸 영상편지가 나오자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놀란 남편을 붙잡고 조금만 더 있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맞춤전도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렸어 여보”

수원 온누리교회 윤정혜 성도는 불교집안에서 나고 자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이

번 맞춤전도집회에 참가신청을 했다. 남편은 쉽게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이 부부는 올해 5월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수료했다. 윤정혜 성도의 권유에 남편이 흔쾌히 응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를 ‘화목한가정훈련학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평소 남편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터라 첫 주만 참석하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끝까지 과정을 마쳤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 서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았다. 그 뒤로 아버지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이번 맞춤전도집회는 내 남편을 위한 집회라고 생각했다. 물론 맞춤전도집회를 통해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더욱 열심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기를”

이날 맞춤전도집회는 근사한 콘서트에 와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한 배려였다.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운 것이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가수 박학기의 공연, 박진아 작가의 샌드아트메이션, 배우 강석우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다. 생전 처

음 교회에 온 남편들에게서도 어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갑자기 스크린에서 낮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영상편지가 흘러나왔다. 예상치 못한 영상이 흘러나오자 남편들이 들쭉였다. 축스럽지만 좋은가 보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남편들에게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날 집회의 대미는 서로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시간이 장식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빨간 장미를, 아내는 남편에게 파란 장미를 선물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화관을 씌어 주면서 믿음의 길에 동행하자고 제안했다. 아내들은 화관을 쓴 남편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고, 남편들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부부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도 소개받은 축복의 장이었다. 이날 테이블 리더로 섬긴 최준수 성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목이 뻐뻐했다.

“남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아내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 분명 남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 줄 것입니다.”

맞춤전도집회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12월 29일에는 후속모임이 진행된다. 2016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비긴어게인 부부나들이’ 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1월 5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2-3215-3214

특집_온누리교회 선교를 말한다

1. 선교사 간증집 발간
2. 2015 선교헌금 결산
3. 2016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2015 선교헌금 결산

105억 7천만 원, 선교사 후원, 선교사 파송 및 훈련 등에 사용

올해는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시작한지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였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섬 없이 달려왔다. 한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손에는 헌신을 들고 온 누리를 섬겼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854명의 선교사들이 지구촌 복음화를 위하여 구슬땀 흘리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선교열정으로 봉헌한 선교헌금이 있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선교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5 온누리선교
30년 돌아보고, 30년 내다보고

올해 2000선교본부는 온누리선교 3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했다. 그 일환으로 6월 26~27일 ‘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일본선교포럼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일본에서 열린 리브소나타 집회를 돌아보고, 일본선교 비전을 공유하였다. 온누리교회와 일본 교계 리더십들이 더욱 협력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

선교사들을 초청한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10월 ‘30주년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다. 5년 이상 장기파송 선교사 및 현지인 사역자, MK(선교사 자녀) 등 270여 명을 초청했다.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場)이었다.

11월 3일에서 6일까지는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에 참가했다. 국내외 선교단체 리더십 및 선교학자 1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온누리교회 선교를 소개했다.

온누리교회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논의도 이어졌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선교 30년은 한마디로 ‘융합선교’라는 비전이다. 온누리교회는 풍성한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TIM, NGO 더멋진세상, Acts29 비전 빌리지, 온누리M미션, CGNTV 등 선교유관기관들이 융합선교라는 이름으로 더욱 협력해 선교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됐다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고르카 지역 교회 3곳을 새로 건축해줬다. 뿐만 아니라 주택 82채를 보수하고, 보건소, 학교 등을 세우는 ‘더멋진마을 조성사

업’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 세네갈 분나바 마을에서는 농업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이생명 살리기(CPR)사업으로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3명을 초청해 치료하였다.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에도 여념이 없었다. 55명이 단기선교사 훈련(TP)을 수료했고, 26명이 본국 선교사 재훈련(H2H)에 참가했다. 23명은 장기선교사 훈련(OSOM)을 받았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기념채플도 완공되었다. 이곳은 선교사 훈련생들과 성도들의 영성훈련의 장(場)으로 활용된다. 또한 4대 훈련원장으로 황종연 목사가 오면서 선교사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스태프를 구성했다.

온누리M미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8월 16일 9개 나라, 11개 예배공동체 이주민 40여 명이 대부도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HARVEST’에는 6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4월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안산 ‘온누리M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탄자니아에서 유치원을 건축 중이다. 교회개혁 훈련을 통해 교사들을 지도자로 양육하고, 어린이들을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하고 있다. 탄자니아 우테데군 12개 마을과 내륙 산악마을, 루피지 강변 마을에는 선교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감비아 잠부르 지역 학교에서는 ‘성경스토리 북’을 활용해 공부방을 진행하고 있다. 매 주일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강당과 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몽골 밝은미래학교 캠퍼스도 보수했다. 1997년 개교한 밝은미래학교는 빈민이나 고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2015 온누리선교 발자취

- 5월 바티칸 C
- 6월 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 렉싱턴 선교사케어센터 프로그램 참가
- 7월 온누리선교심포지엄
- 8월 몽골, 네팔 교회 건축
- 9월 강소성 비로 그 교회, Acts29 비전 빌리지 선교사 숙소동 건축시작
- 10월 온누리교회 30주년기념 선교대회, MK 가이드북 발행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바티칸 C
- 11월 제 3회 KGMLF, 현지 차세대 지도자 양성몽골 밝은미래학교, 몽골 국제대학 등)
- 12월 감비아, 탄자니아 교회 건축

■ 선교사의 감사편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네팔에는 두 번의 큰 시련이 있었다. 4월 대지진과 9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도의 국경봉쇄(경제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연이어 일어난 엄청난 재앙과 시련 앞에 네팔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다행인 것은 네팔의 교회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단체들과 연대하거나 독자적으로 지진피해 구호사역을 펼쳤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네팔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다.

하나님은 올해도 네팔교회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런 일에 온누리교회를 사용하셨다.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의 결랑은혜교회,

나레스월교회, 사울리교회가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졌다. 또 다른 3곳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네팔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나라다. 각 지역교회에 신실한 목회자들과 열정적인 교인들이 많다.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부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지진과 사회적 문제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네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더욱 절실했다. 이 같은 상황에 온누리교회를 통해

네팔 현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요, 큰 축복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네팔의 산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이 교회들이 절망하고 있는 네팔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팔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해 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조경근 선교사

‘친구들교회’ 개척하는 배홍일 목사

관악구 대학동(구 신림9동)에 사회선교, 공활사역 집중하는 교회 세운다

배홍일 목사가 관악구 대학동에 ‘친구들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사임한다. 오늘(27일) 예배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배 목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개척지로 향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고, 예수바보 행전을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홍일 목사가 개척하려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 포부 등을 들어보았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성도들은 물론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배홍일 목사의 목소리에 힘이 넘친다. 개척을 준비 중인 ‘친구들교회’를 소개하는 그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하다. 비전도, 포부도, 계획도 분명해 보인다. 배 목사가 ‘친구들교회’를 개척하려는 지역은 관악구 대학동이다. 고시원 밀집지역인데,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신림동에 예수바보행전을 실천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배 목사의 새로운 사명이다.

배홍일 목사는 1996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올해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지 20년이 되었다. 전도사로 부임해,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배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주로 공활사역을 담당했다. 하나로공동체, 열린이웃, 예수향기회, 번동 코이노니아 등을 섬겼다. 2000년에는 선교사로 파송됐다. 2001년에는 당시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를 섬겼고, 2002년에는 중국으로 사역지를 옮겼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공활사역본부장, 장애인사역본부장, 사회선교본부장으로 섬겼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20년 동안 주로 공활사역을 했다.

배 목사가 공활사역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어릴 적 서부이촌동에서 자랐다. 기차 건널목 주변에서 냄마주이들을 자주 목격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배 목사가 성장기 시절 다니던 교회 목사의 영향도 컸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은 올해 9월이다. 사회선교본부장으로 사역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도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8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배 목사에게 말씀하셨다.

“지역과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과 20년 동안 쌓은 공활사역에 대한 농익은 경험이 그로 하여금 친구들교회를 꿈꾸게 했다. 단순히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이웃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꿈이다.



강서공동체 개강예배에서 특수를 하고 있는 배홍일 목사(오른쪽).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도움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바보행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 목사는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면서 이웃간에 정을 쌓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사랑을 나누고, 정을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마을이 바로 그가 개척하려는 ‘친구들교회’의 청사진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그의 목회 철학이자 비전이다.

‘친구들교회’의 청사진

친구들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배 목사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다.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빈민목회를 하고 있는 신양교회 차정규 목사도 만났다.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듣고, 지역적 특성도 파악했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다 가구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대학동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에만 노인 인구가 4천 7백 명이나 있다. 독거노인이 1천명, 수급자가 8백 여 명이나 됐다. 무허가 판자촌도 있고, 재

에서 약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배 목사가 개척을 준비 중인 ‘친구들교회’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공활사역과 사회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 낮아진 교회, 예수바보행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청사진이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뻥뻥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낮아져서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개척하려는 ‘친구들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는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목회한 20년과 완전히 다른 20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품은 꿈이 더 크고 선포했다. 두려움보다 섬기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진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저의 부족함을 많이 참아주셨어요. 부족한 채로 그분들을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잊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 목사에게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 자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연합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관악구 삼성동, 대학동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출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제목이라고 했다. 성도들에게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
날짜: 1월 7일 ~ 2월 25일(매주 목요일)
시간: 오전 10시30분 ~ 12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1호

개발 지역도 있다.

“노인들과 고시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형편이 녹록치 않은 이웃들의 고충도 말로 다 못할 정도고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위로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 목사가 왜 교회이름을 친구들교회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배 목사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요 15:14).

이 말씀이 살아 숨 쉬는 교회,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고, 지역사회 속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8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비텐베르크 여정은 루터하우스에서 출발해서 비텐베르크대학의 채플실로 쓰였던 성안교회(현재 명칭은 Schlosskirche)에서 마치게 된다. 루터는 이곳에서도 설교를 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 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때가 1517년 10월 31일이다. 개신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루터는 왜 이날을 선택했을까?

11월 1일 비텐베르크에서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면죄부 판매를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루터는 이때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박문을 알릴 수 있는 호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하였던 것이다. 원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에게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면 95개 조항을 독일어로 써서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조 세력을 모았을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라틴어로 써서 게시하였다.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반박문을 보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청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종교개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마틴 루터는 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베드로성당이다. 그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 안에 있는 베드로 동상의 양 발을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춰 닦고 닦아 밟고 있다. 면죄부는 이 성당과 관계가 깊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당을 건축하면서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자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기로 계획하였

95개 조항 반박문

다. 면죄부란 돈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구입하면 그들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면죄부 판매는 알베르트(Albert)라는 사람에게 위탁되었고, 모금액은 교황청과 50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는 테젤(Tetzel)이라는 웅변가를 고용해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면죄부 판매를 위한 순회설교를 하도록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속아 넘어갔고, 그 결과 교황청은 거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어느 과부가 죽은 남편을 위하여 빚을 내서 면죄부를 구입한 이야기를 들은 루터가 노발대발했다는 일화가 있다. 루터는 카톨릭교회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한 명의 사제로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처음에 라틴어로 게시되었던 95개 조항 반박문은 독일어로 인쇄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 달 만에 유럽 전 지역으로 퍼졌다. 95개의 반박문 중에 주목되는 것은 교황에게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는 대목이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다.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등이 있고, 그 외 내용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교회 안에는 루터와 멜랑히톤은 물론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의 무덤이 있어서 참관하는 이들의 마음을 엄숙하게 해준다. 나는 스위스에서 칼빈이 설교했던 강단 위에 올라 서 보았다.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설교한 강단에도 서 본적이 있다. 그리고 이곳 루터의 설교단에도 서봤다. 감동 중의 감동이었다. 목회자가 성경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한다는 영적다짐을 하게 해주었다. 이 교회의 종탑에는 마틴 루터가 변론을 위해 보름스회의에 참석하고자 출발할 때 불렀던 자작곡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의 가사가 큰 글씨로 쓰여 있다. 교회 정문에는 95개 조항을 동판으로 새겨서 새 단장을 해 놓았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의 힘이 컸다. 정치적으로는 프레드리히 대제가 그를 보호하였고, 재정적으로는 루카스 크라나크가 후원하였다. 신학적으로는 멜랑히톤이 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고, 수녀 출



95개 조항이 새겨진 교회의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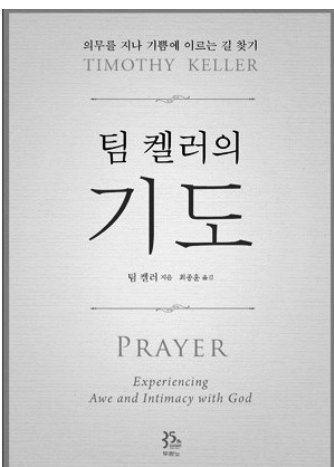
신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가정을 돌봤다. 교회적으로는 시티교회 담임목사였던 요하네스 부게하겐이 있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각본대로 진행된 교회갱신운동이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말씀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마이클 리 목사(영어예배 양육담당)

두 가지 깨달음



었다.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어릴 적 존경하는 분이 있었다. 그분은 전도사님이었는데 내 인생의 조연자였다. 그 전도사님은 운동을 참 잘하셨다. 성격도 적극적이었다. 전도사님이 내게 조언해주실 때마다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 전도사님은 늘 내게 “너는 답을 알고 있어.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

나. 나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12살에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했다. 그러던 내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달라졌다.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 적이 또 있다. 신학교에 갈 때였다. 당시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셨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도 있었다. 신학교 입학할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를 어머니의 믿음이 붙잡아 주었다. 어머니의 지인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격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주겠다”(사 41:10).

나처럼 누구나 삶에 영향을 받은 계기가 있다. 팀 켈러가 쓴 <기도>라는 책도 내 삶에 영향을 주었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는 접근법을

소개했다. 시편묵상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팀 켈러 자신이 위기를 겪으면서 배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내가 팀 켈러의 <기도>를 읽고 깨달은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 믿음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 한 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뻐했다. 그 친구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놀리던 친구였다. 나는 그 친구가 놀리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지만 용기를 내서 성경책을 그의 생일선물로 줬다. 호기심에 우연히 보게 된 성경책이 그를 구원했다. 그 친구와 대학교 때에도 연락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가 됐다.

둘째,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내게 믿음과 확신을 줬다. 매년 이 두 가지 확신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있다. 이제 곧 새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중동서 열린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외국인 근로자 100명 초청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지난 17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100명을 초대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극진히 섬겼다. 안 내와 배식, 청소,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 차세대들은 위 십댄스와 부채춤, 핸드벨, 마임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료들 앞에서 예수 만난 간증을 했다.

파키스탄 출신 카쉬프 형제는 “아부다비에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준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며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미소와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다. 전체 인구 11%만 현지인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부다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은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 수용소(Labor Camp)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캠프를 섬기면서 알게 된 1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할 것이다.

/ 김태완 목사(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열린다성경 아카데미 친구약 무료강좌

구약 1월 11일, 신약 1월 18일 19시30분

열린다성경 아카데미에서 ‘친구약 성경 무료공개 강좌’를 실시한다. 구약편은 ‘분열왕국시대 따라잡기’를 주제로 1월 11일, 신약편은 ‘사도 바울 전도여행 따라잡기’를 주제로 1월 18일에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오후 7시30분에 시작된다.

강의는 류모세 선교사가 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무료공개강좌에 참석하려면 휴대폰(010-4902-1022) 문자메시지로 희망하는 강좌와 이름을 전송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양재 2000선교, 프랑스어 겨울특강

양재 2000선교에서 프랑스어 겨울특강(기초과정)을 실시한다. 2016년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열린다. 구정연휴 기간인 2월 8일에는 휴강한다.

프랑스어 겨울특강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회비는 2만 원이다.

문의: 010-3912-9393

CGN 투데이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

제6회 크리스천기자협회 보도부문 최우수상

CGN 투데이가 중동 난민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보도 프로그램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가 한국 크리스천기자협회가 선정한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기자상 시상식에서 CGN 투데이가 제작한 프로그램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가 심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보도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는 CGN TV 보도 프로그램 ‘CGN 투데이’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 10회에 걸

쳐 방송한 기획뉴스다. 유럽 난민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담아낸 수작(秀作)이다. 유럽 난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CGN TV 본사가 기획과 편집을 맡고, 아랍에미리트 CGN TV 최서우 PD가 영상 취재, 난민 사역자이자 포토저널리스트 이중덕 선교사와 김형석 목사가 취재했다.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는 ‘유럽의 난민 하이웨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내년 1월 방송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수공동체 전도집회 ‘응답하라 3040’

42명 예수 영접

이수공동체가 지난 12일 ‘응답하라 3040’을 주제로 맞춘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도집회에는 전도대상자 87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42명이 예수를 만났다.

이수공동체 전도집회 ‘응답하라 3040’은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김덕운 예배실에서 진행됐다. 30~40대를 위한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CCM가수 주리, 지미션&백성현, 소프라노 신델라, 권사회나타림, 온누리챔버가 출연했다.

이날 만지 않는 남편과 두 자녀를 데려온 백수정 성도는 “남편과 두 자녀가 믿음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했고, 위성규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서 큰 기쁨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수요오전여성예배 세례식

서빙고 12명, 양재 13명 세례 받아

지난달 18일 서빙고 여성사역이 개최한 전도집회 ‘이야기가 있는 가을 콘서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12명이 세례를 받았다.

지난 23일 서빙고 수요오전예배에서 세례식이 거행됐다. 이날 세례식에서 조호영 목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제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축복했다. 이날 세례를 받은 김옥정 성도는 “유교문화가 강한 집에서 자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했다. 같은 날 양재

수요오전여성예배에서도 지난달 18일 열린 전도집회에서 결신한 전도대상자 13명이 2주간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세례를 받은 김경미 성도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고, 한선희 성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 이소정, 김영선 기자

축하합니다 - 12월 세례자

■서빙고

김정진 800503
손용우 690301
유정은 780101
이석원 640315
이창희 651201
이현정 640824
정유경 730702
최유경 840130
허자윤 840804
▷ 유아
강주권 140908
강원대 김희숙
김빛마리아150519
김다일 최미나
김시훈 140502
김현준 이하나

김희환 141106
김한이 박지영
송민준 150405
송영훈 문보미
신하가 150113
신일수 신명혜
오나윤 140206
오정숙 김진아
오연우 131102
오승석 구진아
진민수 140813
진재경 유선형
천다니엘 141219
천광욱 이주현
최승준 140124
최경순 김지연
한준희 140419

한상준 윤경희
홍유수 150323
홍천희 김미경
▷ 입교
정하은 950225

■양재

김정환 790619
김상경 690613
최현정 730531
▷ 유아
강하준 150110
강병구 허정수
김단아 140903
김우형 최우리
김리아 141213
김재능 당정미

김선유 140103
김세중 김지엽
김예나 140811
김성민 이미라
김태이 140120
김재원 안수지
유아준 141213
유재경 현수혜
이유현 140418
이성학 유미리
이재용 141201
이기훈 김정경
이재은 141201
이기훈 김정경
이하엘 141219
이탁영 이나리
이하은 150207

이상진 최선아
임재민 140422
임하형 이영주
임하영 140116
임성환 김윤주
최동주 150226
최한규 박혜경
▷ 입교
이성빈 930907

■특별한초대

천혜린 850324
조혜정 850201
▷ 유아
김하을 140716
김윤희 김시은
차상우 150316

차승용 서은미
한 결 150827
한승진 임지영

■대학청년

요셉
배유리 810502
정태성 780512

허브

곽민주 960721
권지윤 921211
배희준 950730
최연우 930709
▷ 입교
김광진 960504
김윤정 961122

서범석 940831
이원선 940802
이주는 930403
임혜빈 940921
조형주 940508

W

권혜영 791020
박나리 850120
최유선 740104
▷ 유아
김하준 141019
김성배 최은혜

정호옥 목사, 김영숙 선교사 은퇴



정호옥 목사

“참 많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의 온누리 30년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스7:9, 느2:8, 18)에 이끌려 지낸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전 따라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고, 재생산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역하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 증인된 30년은 정말 행복했기에 저는 ‘행복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순간순간을 지냈습니다. 새가족

반, 일대일 제자양육, 1만사역, 온누리복지재단을 모두 그렇게 섬겼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섬겨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교회지도자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사역을 섬기면서 복지사로서 ‘여호와 이레’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 살게 하였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였기에 모든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용납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늙은이로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골2:28)에 힘입어 일

본, 중국,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아니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 갈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을 따라 목숨 걸고 복음 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은퇴(Retire)’가 참 좋습니다. 30년 쉼 없이 달려와 낡은 대로 낡은 신발(타이어)을 새 신발(타이어)로 바꿔 신고 달려갈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한껏 행복합니다. 앞으로 30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재훈 목사님과 더불어 패역한 세대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바보행진’을 써 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저도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주십시오.



정호옥 목사가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살아생전 하용조 목사님께서 “두 시간 공부했으면, 두 시간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그리스도인, 온누리맨이 되십시오. 늘 기도하겠습니다.

정호옥 목사는 3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새신자과정, 일대일 제자양육, 1만사역, 온누리복지재단 등을 섬겼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하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써갔던 ‘온누리행진’ 이야기를 꽃 피우는 그날, 할 말이 없어 소외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장부가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숙 선교사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는 저를 목회자 반열에 세워주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 조그마한 힘을 보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 남편은 2004년 소천한故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우리 부부가 온누리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5년 6월부터였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용조 목사님이 선포한 2천1만 비전을 따라 온누리교회에 왔습니다. 당시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천1만 비전을 품은 온누리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훈련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도와달라.”

당신이 선교를 하고 싶는데, 선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온누리교회 선교에 동참해 줄 수 없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선교훈련센터를 만들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차로 훈련받은 청년 12명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정말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1년 훈련시키고 2년 동안 현지에서 선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라는 하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때(2000년 4월)부터 선교훈련을 시키는 동시에 매주 오사카를 오가는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양지에 선교훈련센터를 세우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양지는 영적으로 정말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땅 밟기를 하면서 그곳에 선교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라크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품고 2003년 10월부터 이라크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어 예상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 소천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는 나에게 하 목사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 함께 있어주세요. 선교사역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서빙고 일본어예배를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일본어예배를 섬길 요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일본어예배 담당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늘어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을 무사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예배가 러브소나타 집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러브소나타를 시작할 당시에는 일본어예배부의 역할이 미비해서 아쉬웠습니다.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집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일본어예배부가 많은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과 번역 감수는 물론, 후



김영숙 선교사(좌)와故 김사무엘 목사(우) 부부.

속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에도 일본어예배부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양육자들이 일본인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 해주는 것이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일본의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믿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일본 교회들의 사정이 열악합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대

일 제자양육을 통해 일본교회 양육자를 만드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건, 선교사건 상관없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선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영숙 선교사는 2004년 소천한故 김사무엘 목사의 아내다. 1995년 6월부터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에 앞장섰다. 세계선교훈련센터, 일본어예배부 등에서 사역했다.



장로칼럼 이상열 장로(이수공동체)

청년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나는 40대 초반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 바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청년들이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다.

나는 청년들에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꼭 전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만 상처가 회복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수공동체가 지난 12월 ‘응답하라 3040’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열었다. 30~40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였다. 30~40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집회를 준비했다. 세대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교회가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도집회 준비도 30~40대 비교적 젊은 순원들이 주체가 되어 준비하고, 진행했다. 그런데 젊은 순원들 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보니 대부분 전도집회를 준비해 본 경험이 없었다. 완전한 백지상태는 아니었다. 전도집회를 진행하고, 계획한 경험은 부족했지만 수많은 전도집회와 러브소나타 집회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경험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막힘없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

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이 아닐까 싶었다.

이번 전도집회에서 세 가지 열매를 맺었다. 첫째, 전도대상자 87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42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둘째, 집회준비를 하면서 이수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났다.

셋째, 안개순원들이(공동체에 배정되어 있지만 순모임이나 교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록교인)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전도집회를 계기로 공동체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10만 청년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선포하셨던 비전이 이제 가슴에 와 닿는다. 이수공동체만 보더라도 리더십들이 노령화되고 있다.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청년들이 줄어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만다.

이수공동체가 개최한 맞춤형전도집회 ‘응답하라 3040’은 청년 부흥을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집회가 도화선이 되어 30~40대를 위한 맞춤형전도집회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수공동체가 받은 은혜와 배움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싶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국내 10개 캠퍼스 교회와 해외비전교회까지 청년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한다. 청년들이 평안을 찾을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감당하고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권사칼럼 고영희 권사(이촌공동체)

기도가 최우선순위

기도는 물 떠든 하인만 아는 기쁨이다. 기도의 기쁨을 맛보기까지 숭한 세월이 흘렀다. 내게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한 원동력은 ‘CGNTV를 위한 기도모임’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모임’이다. 기도는 나의 인생에서 맛본 또 다른 기쁨이었다. 기도는 내게 소망을 주었고, 기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다. 내가 살면서 느낀 기도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도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든다. 성숙한 신앙은 기도의 불을 지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중보기도자로서 무릎을 꿇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눌 때 기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속한 순과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산다.

둘째, 기도가 우리를 젊어지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간구하는 기도제목이 있다. 영성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김동길 박사의 〈나이 들이 고맙다〉라는 책을 읽고 ‘나이 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다. 젊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젊으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 ‘젊으면 더 열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의 젊음은 외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젊음은 내적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수록 젊어진다는 것이다. 영성의 젊음은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도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CGNTV를 위한 기도모임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

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사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GNTV가 걸어온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CGNTV는 현재 5개 위성국과 6개 위성빔을 통해 하루 24시간, 175개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고,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홍콩에 제작센터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CGNTV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5만 명의 후원자가 생기고, 전 세계에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계속 부르짖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셨다. 조용한 곳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외딴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눅 5:16)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바쁜 나날 속에서도 기도하셨다.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기도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갖고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다.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평한 기회다. 우리 삶속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연말 연시가 되면 다이어리를 사고, 신년계획을 세운다. 가장 먼저 기도가 중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삶이 변화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이정엽 목사(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들은 시들해진다

컴퓨터를 정리하다 나이가가라 폭포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보게 되었다. 유학 와서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섬기던 시절 가족들과 갔던 여행이었다. 푸른색과 노란색 우비를 입고 찍은 가족사진이 제법 많았다. 폭포를 본 감동 때문에 열심히 셔터를 눌렀던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 캐나다 쪽에서 본 나이가가라 폭포가 더 큰 감동이었다. 미국 쪽에서 본 나이가가라 폭포가 웅장한 맛은 있지만 캐나다 쪽에서 본 나이가가라 폭포를 따라 갈 수 없었다. 아쉽지만 이미 미국 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누군가는 “나이가가라”를 “저리가라”로 만들어 버린다는 브라질 이구아수(Iguacu) 폭포 이야기를 했다. 영화 ‘미션’에서 악한 노예상인이었던 주인공이 수도사가 될 요량으로 무거운 갑옷과 소지품이 담긴 그물망을 짊어지고 폭포 옆 벼랑을 기어 올라가던 장면

에 나온 바로 그곳이다. 기회가 되면 지상최대 규모의 이구아수 폭포에서 오보어로 멋있게 연주하는 영화 ‘미션’의 주제가를 듣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캐나다에서 본 나이가가라 폭포를 잊을지도 모르겠다.

2015년 한해를 돌아본다. 가만히 있었으면 알 수 없었을 터인데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다이어리를 뒤적이며 그때의 감동을 다시 떠올렸다. 그러던 중에 내가 누린 은혜가 나이가가라 폭포인가 아니면 이구아수 폭포인가를 질문했다. 지금까지 내가 감당한 일들이 큰 은혜이고, 큰 감동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최고나 최선이 아닐 것이다. 당연히 지금의 것에 감사하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이다.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들은 곧 시들해진다. 진국을 경험하면 조미료 국물이 꺼려질 따름이다. 가수 나훈아를 직접 만

난 사람은 닮은꼴 가수 나훈아에게 열광하지 않는다. 땅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 영광을 경험하면 곧장 시시해진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집착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깊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난다(마13:44-46).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는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이 땅의 헛된 것에 더 이상 눈길이 가지 않는다.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게 된다. 이전에는 세상 즐거움으로 기뻐했지만 이제 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이 된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위한 기도제목을 정하며 은혜의 폭포수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전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의 폭포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출생 장소로 베들레헬을 선택하신 이유 세 번째는 베들레헬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서 5장 1절은 다윗 왕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오 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빵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미 5:1).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막대기로 빵을 맞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 태어나게 하는 메시아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다윗

에게 의로운 나뭇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렘 23:5).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사 11:10).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민족의 깃발이 되고,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와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미 5:4).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지저분하고, 버림받은 성읍에서, 슬픔이 가득한 성읍에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땅이 바로 베들레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베들레헬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오심을 알리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시되 가장 작고 연약하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그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의 성읍에 희망을 주시고 버림받은 성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버림받고 가슴 아픈 상처들을 임마누엘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과학이야기 7. 세포



정성수 집사
(창조과학회 이사, 충남의대 내과교수)

세포는 설계되었다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세포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자동차 부품 수는 2~3만개다. 자동차 부품 한 개, 한 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품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해도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 조립해야 한다. 부품을 만드는 과정부터 조립까지 사람의 지혜를 동원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엔진, 동력 전달장치, 바퀴 등 핵심부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로써 기능을 할 수 없다. 항공기나 로켓도 약 500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하다.

세포를 기계장치에 견주면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할까? 세포를 현미경으로 처음 발견한 당시 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젤이 채워진 방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세포 안에 적어도 부품 10억 개가 있었다. 그래서 세포를 단순히 기계장치에 비유하지 않고, 하나의 도시와 비교했다. 적어도 서울시 크기만큼 거대하다.

세포를 세포도시(cell city)라고 생각해보자. 세포도시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있다. 세포도시를 둘러싼 성곽(세포막, 세포벽)도 있다. 누군가 출입을 하려면 사전에 약속된 표시(신호전달)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웃 세포도시와도 서로 연락해 협력하고 있다.

세포도시에는 신호전달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여 세포도시를 가꾸는 다양한 신호체계가 있다. 고속도로, 철길, 골목길 같은 세포도시의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이동로(세포

골격)도 있다. 이것은 운송수단에 해당된다. 동력을 만드는 발전소 형태의 에너지공장(미토콘드리아)도 있다. 세포도시 전체가 이동할 때 필요한 장치도 있다. 세포도시 성곽들은 헬리콥터 프로펠러와 같은 이동수단(섬모 혹은 편모)을 준비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부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세포질내의 리보솜)도 있고, 조립하는 장소(골지체)도 있다. 오래된 장치를 해체해서 재활용하는 기관도 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는 시스템도 설계되어 있다. 만에 하나 불법 침입자가 세포도시에 들어오면 이를 잡아서 처리하는 경찰과 감옥(리소솜)도 있다. 더구나 세포도시는 자신과 똑같은 세포도시를 복제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지휘소(핵)가 이를 진두지휘한다. 세포도시를 만들려면 도시 정보가 내장되어있는 정보도서관(핵산)이 복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세포는 이를 너무도 쉽게 처리하는 것 같다. 책 천 권을 복사하는 장치도 있다. 혹여 복사가 잘못될 경우 복구하는 장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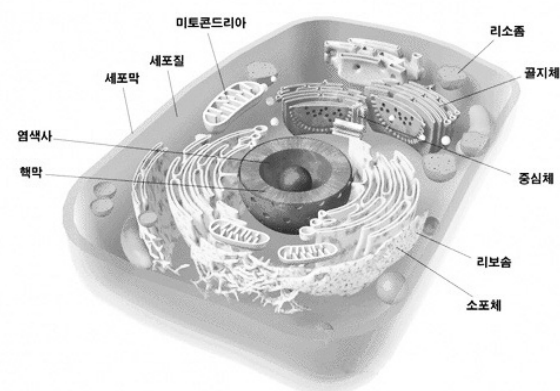
세포도시는 계속 유지될까? 세포내의 모든 장치는 계속 복구가 일어난다. 너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이웃도시와 몸 전체를 위해서 도시를 비우고 해체하는 작업도 한다. 아무 손상 없이 ‘자가소멸’이라는 방식으로 세포도시를 청산하기도 한다.

다시 정리하면 세포는 거대도시와 같은 고도의 조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자동차나 로켓보다 복잡하고 정교하다. 전자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기능은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모든 부품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각 부품 사이에 정보교환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자동차가 설계되었다고 믿는다면 응당 세포도 설계되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 설계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20).



세포조직.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회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워이프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수 오전 9:15 누리홀

양재: 매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주 수 오전 9:30 온유희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7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21차 람풍 이웃리치 팀원 모집

일정: 2016년 2/6(토)~2/12(금)

지역: 인도네시아 람풍

내용: 대체의료(수기요법) 및 청소년사역

비용: 약 120만원

기타: 수기요법 종사자 및 의료, 미용,

발마사지, 워십 가능자 모집

문의: 일반사역 이성주 (010-9443-9032)

수기요법 엄현정 (010-8264-6909)

2000선교본부 팀장 간사 모집

모집: 팀장 간사 1명(남여 구분 없음)

필수요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사무행정 가능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유자

선교 관심자 또는 경험자 우대

업무: 선교 행정 및 기획 지원

근무조건: 교회 내 간사 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

서(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이메일(yusup@onnuri.org)

문의: 전영옥 간사(02-3215-3216)

두란노어머니학교 자원자 모집

일시: 2016년 1월 5, 7, 12, 14일

매주 화, 목요일, 총4회, 10:00~15: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사: 한은경, 김성목, 이기복, 주미향, 박종길

접수: 02-2182-9114, www.mother.or.kr

주일 7부예배 싱어 모집

자격요건: 온누리교회 세례, 등록교인

연습시간: 매주 주일 저녁 7시

문의: 김미경 팀장(010-4876-1480)

주일 5부예배 자막봉사자 모집

자격요건: 온누리교회 등록, 세례 교인,

1년 이상 주일예배 출석, 주일

5부 예배 연습시간부터 예배 마

무리까지 성실하게 섬겨주실 분.

시간: 주일 오후 3:00~6:00

문의: 박이호 전도사(010-8581-6481)

*게시판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성찬 봉사자 모집

봉사내용: 성찬예배(매월 첫째 주)

포도즙과 떡 준비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낮 2시~4시,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CGNTV

다시 쓰는 Acts29

예수바보행진전

Fools for Christ

성도 모두가 선교 사명을 품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
단일교회에서 1,00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온누리 선교의 30년 열매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봅니다.



• 방송시간 : 12월 27일 (일) 오전 10시 30분,
12월 28일 (월) 오후 9시 40분

CGNTV에서 부문별 사원을 모집합니다

방송선교에 비전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모집분야. 전략/기획, 후원기획/관리, CMS관리, 홍보기획, 웹디자인, 웹개발, 웹퍼블리싱, 경력PD, 모션그래픽, 카메라감독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지원방법. 이메일접수 (각 담당자)
- 제출서류. 자사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gntv.net

CGNTV

Tv 프로그램



▷ 생방송 송구영신예배
-12/31(목)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 생방송 신년예배
-1/1(금) 오전 9시, 오전 11시
201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신년예배입니다.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2/28(월) 오전 11시 서정인 목사 / 한국컴패션 대표 '나눔이 주는 선물'
-12/29(화) 오전 11시 임명희 목사 / 광야교회 '쪽방촌 아리랑'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12/27(주일)	12/28(월)	12/29(화)	12/30(수)	12/31(목)	1/1(금)	1/2(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시 쓰는 ACTS29, 예수바보행진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순종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대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아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시 쓰는 ACTS29, 예수바보행진 23:50 페리 노블의 믿음의 승리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15:30 [대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주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임직자스쿨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5:30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다시 쓰는 ACTS29, 예수바보행진 16:50 [컨퍼런스] 새 하늘과 새 땅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9:00 생방송 송구영신예배 21:00 생방송 송구영신예배 23:00 생방송 송구영신예배	05: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신년예배 11:00 생방송 신년예배 13:5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5:30 2014 추앙재단 목회강좌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임직자스쿨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사도행전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주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민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9:00 2015 임직자스쿨 21:20 2015 THE 멋진 당신 22:30 [다큐] 오스카니스의 인생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